

화학기업, 상반기 순이익 88% 폭증

증권거래소, 영업이익 · 순이익 대폭 개선 ... 2/4분기 들어 위축 양상

2004년 상장 화학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으나 2/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/4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증권거래소가 국내 12월 결산법인 중 2003년과 비교 가능한 535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화학기업(지수업종 기준)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3.72% 증가한 36조743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화학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5.5% 증가한 3조1939억원, 순이익은 87.54% 증가한 2조7775억원이었으며, 전체 부채비율은 113.91%로 4.21%p 낮아졌다.

특히, 2004년 2/4분기 실적은 2003년 2/4분기보다 수치상으로 매출액은 19.25%, 영업이익은 148.29%, 순이익은 86.79%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2004년 1/4분기와 2/4분기를 비교할 때 매출액은 2.99% 증가에 머물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.81%와 9.46%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.

2/4분기 영업실적 증가율이 1/4분기보다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화학업종 뿐만 아니라 금융, 섬유·의복, 의약품, 유통, 통신업종 등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상반기 수출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던 국내기업들이 2/4분기에 크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반영했다.

더욱이 전체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97.69%로 100 아래로 떨어진 반면, 1/4분기 흑자에서 2/4분기 적자로 전환된 40사를 포함해 상반기 적자기업이 총 94사에 이르러 제조업 전반의 경기가 2/4분기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.

상장기업의 영업실적(2004.1-6)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매출액		영업이익		순이익		부채비율	
	2004.1H	증감률	2004.1H	증감률	2004.1H	증감률	2004.1H	증감률
건설업	170,402	10.13	13,651	12.91	10,056	33.47	166.91	▽1.50
기 계	50,196	23.61	4,250	31.33	4,789	76.14	92.67	▽1.77
비금속광물	25,782	0.00	3,730	▽24.28	2,370	▽33.81	65.46	▽3.44
섬유/의복	24,291	0.41	792	▽44.11	1,735	113.36	96.82	▽12.90
운수장비	388,553	9.91	23,270	▽16.21	22,770	-9.75	133.09	4.17
운수창고	89,856	19.68	7,816	301.42	7,093	흑자전환	258.62	▽24.55
유통업	222,451	14.22	8,041	8.30	6,071	71.74	108.05	▽3.76
음식료품	87,757	9.75	6,927	▽1.20	5,303	5.82	107.92	▽0.92
의료정밀	10,849	19.93	763	43.97	397	▽5.68	127.38	▽5.24
의약품	18,560	13.94	2,404	22.77	1,621	33.14	78.07	▽3.50
전기/전자	622,071	43.07	117,665	265.18	105,169	360.57	63.78	▽3.71
전기가스업	195,691	8.16	15,653	32.47	18,765	12.61	59.14	▽4.87
종이/목재	21,210	6.90	1,798	▽10.58	883	12.71	117.10	▽9.27
철강/금속	203,807	29.08	34,888	50.96	26,922	77.19	65.75	▽0.15
통신업	142,969	5.75	27,681	▽16.88	14,193	▽41.34	159.79	0.44
화 학	367,432	13.72	31,939	55.50	27,775	87.54	113.91	▽4.21

† 부채비율은 2003년 말 대비 2004년 6월말 기준

상반기 중 적자전환된 화학기업은 코스모화학, 코오롱, 이수화학, 한국화인케미칼 등이며, 한국가스공사, E1, SK가스, 대원화성, 삼영화학 등은 2/4분기에 적자로 돌아섰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18>